

광양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내일 양봉 농가 30여 명 대상 2차 컨설팅 예정 “애로사항 해결해 체계적 육성·소득 증대 앞장”

광양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오는 18일에 2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개소 연구회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6회 216명의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토마토, 양봉, 녹차, 산초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재배 작목이 동일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작목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에서 토양관리, 재배기술, 유통·마케팅 등 분야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주는 현장 컨설팅 교육이다. 올해 초 3월에 교육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교육이 11월부터 다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ICT 재배기술을 활용한 토마토 재배기술에 관한 현장 컨설팅을 1회 실시했다. 농업마이스터 토마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하우스에서 작물상태를 보면서 현장에서 기술을 직접 알려주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양봉의 질병관리에 관한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20일 광양시 차연구회에서 신청한 녹차, 30일에는 산초연구회에서 신청한 산초의 재배기술에 대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남일 기술보급과장은 “품목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



리 지역 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고흥군, 브랜드 경영 부문 ‘대상’

인구감소율 제로화 목표 달성 위해 인구정책과 신설 등

고흥군은 최근 서울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TV조선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후원한 ‘2020 경영대상’에서 송귀군 군수가 ‘브랜드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영대상은 지난 8월에, 전국 지자체와 기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고흥군에서는 귀농·귀촌 분야에 응모를 하였다. 주최 기관인 TV조선에서 경영자의 리더십, 역량, 지원 인프라, 부문별 성과, 기대효과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고흥군이 브랜드 경영 부문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고흥군은 매년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송귀군 군수는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한 후 임기 4년 동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율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고흥군은 인구감소율 제로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설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사전 교육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에서는 다양한 인구 관련 시책을 펼친 결과 민선 7기 동안 고흥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3,017명으로 1개년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여 고흥군의 인구감소율을 대폭 낮춰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지난 6월에 공동 발표한 ‘2019년도 도시민의 귀농인’ 통계에서도 고흥군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고흥군의 인구정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보성군, ‘전국 생산량 1위’ 명품 보성키위 정예농업인 배출

보성생명농업대학 키위반 45명, 8개월 교육 마치고 졸업식



보성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10기 보성생명농업대학 키위반 졸업식을 갖고 명품 키위 생산 전문 농업인 45명을 배출했다. 2011년 1기 한우전문반을 시작으로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금까지 정예 농업인 395명을 양성했다.

이반 교육은 3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총 15회, 60시간에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보성군은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키위를 명품화하고, 생산자 간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등 고품질 키위 재배 관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2020년 농업대학을 키위반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외래강사와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를 활용하여 키위 생육 및 생태적 특성, 꽃가루 활력 검정 기술,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하 모 씨는 “올해 배운 지식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실현하고, 고품질 키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졸업식에 참석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선진 농업·농촌 만들기는 보성군의 핵심과제”라며 “여기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보성의 대표 작목 명품키위를 육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여수 동문동 ‘동백꽃 가로수 뜨개질 거리’ 눈길

해운경로당 회원·주민 참여...해양공원 72그루 겨울옷 입어

여수시 동문동(동장 조영화)은 최근 해양공원으로 유명한 종화동 일대에 동백꽃 가로수 뜨개 옷을 입혀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였다. 이날 동백꽃 가로수 뜨개질 거리 조성 행사에는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해운경로당 어르신, 주민들

이 참여해 72그루에 겨울옷을 입혔다. 뜨개 옷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운경로당 회원들과 동문동 주민들이 지난 6월부터 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한파와 해풍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고, 종화동 관광명소인 해양공원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경로당 대표 주선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조영화 동문동장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뜨개질 거리 조성에 앞장서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윤곽

순천 승주읍 일원 100억 투자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윤곽이 드러났다. 순천시 승주읍 일원에 100억 원을 들여 생산동 1층과 연구·지원동 3층의 연면적 2915㎡ 규모로 건립예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 9월 설계공모를 마치고 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설계 및 제품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제품 개발 및 공정설비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건립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공정설계·제품개발 용역과 건축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중 2021년 2월 착공 12월 완공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 개발, 기능성 분석 및 평가, 공정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위탁생산, 창업지원 등을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발효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19년에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억원 지원받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의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치 향상시키고 발효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